

# 19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에서 학출활동가의 노선과 실천 -‘실-반실’ 논쟁을 중심으로-

이 광수\*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지역 노동운동의 시작과 ‘실-반실’ 논쟁
- III. 파업과 연대에서 학출활동가의 역할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부산에서의 ‘실-반실’ 논쟁에 대한 평가는 80년대 부산지역의 노동운동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실-반실’ 논쟁은 선도 투쟁을 통해 조직을 강화한다는 소위 ‘실’ 진영과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준비에 몰두해야 한다는 ‘반실’ 진영 사이에서 벌어진 노선 논쟁이다. 하지만, 전위대를 만들고 조직하여 변혁 운동을 꾀한다는 같은 목표도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독재 정권에 맞서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노동운동의 씨를 뿌렸고, 그 결과가 모여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져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노동자대투쟁이 진행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 / [gangesh@bufs.ac.kr](mailto:gangesh@bufs.ac.kr)

면서서 학출활동가들이 몇 년 동안 조직해 온 소그룹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고, 그 학출활동가들의 외부 조직이 상당한 역할을 해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산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이 그들이 애초에 추구했던 정치 투쟁으로서의 변혁 운동 차원에서의 조직 활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노동운동에 영향을 남길만한 큰 대중 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끝까지 살아남아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맞이하지도 못했다. 결국, 학출활동가들의 활동은 이후의 부산지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들은 맑스 이론에 경도된 채 운동의 주체성이나 대중의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로 인해 운동과 대중과의 분리를 심화시켰다. 결국, 그들이 추구한 급진적 정치 투쟁으로서의 운동의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한 채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주의와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부산지역 노동운동의 주류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장의 선도투나 소그룹운동을 통해 의식화된 노동자들을 길러냈고, 그렇게 성장한 '선진노동자'와 함께 이후 많은 노조 결성을 이끌었으며 이후 부노련·부산노련과 같은 연대체 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주제어 : 부산지역, 노동운동, 학출활동가, '실-반실', 노선 논쟁

## I. 머리말

부산지역은 한국 제2의 도시이자 동남 임해 공업 단지에 속한 도시이다. 연구의 시기인 1980년대에는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신발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이고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경제가 침체 되면서 자본과 국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억압하였다.<sup>1)</sup> 이 연구는 이 시기의 노동운동에 관한 것이다.

1)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아카데미, 1993, 235쪽.

198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한국 현대 노동운동사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그 시기 가운데 전반부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우선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탄압 속에서 정치 운동으로서 좌절되어 버린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관한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바로 이 시기 즉 1980년대 초중반에 소위 ‘학출활동가’<sup>2)</sup>라고 불리는 부산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추구한 사회 변혁 운동에 관한 것이다. 그 학출활동가들이 부산지역에서 노선 투쟁을 어떻게 벌이고 실천하였는지, 소위 ‘실·반실’ 논쟁이라고 알려진 두 노선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부산지역의 학출활동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없다. 다만, 전국을 단위로 볼 때 이종오의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sup>3)</sup>과같이 노동운동의 노선과 조직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초기의 연구물이 있을 뿐이다. 이후 2015년이 되어서야 유경순이 고려대학교에서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sup>4)</sup> 낸 책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sup>5)</sup> 두 권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김원 외 일곱 명이 집필한 『민주노조, 노학연대

2) 1980년대 노동 현장에 투신한 학생운동 출신자들에 대해 ‘대학생 출신 노동자’ 또는 ‘지식인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생산직 노동자들과 이들의 성장 배경을 구분 짓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학생운동의 연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투신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 (약칭 ‘학출’)라고 규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학출활동가와 변혁 운동』, 봄날의 박씨, 2015, 28쪽).

3) 이종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 『한국노동운동이 이념』(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편), 정암사, 1988.

4)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학출활동가와 변혁 운동』, 봄날의 박씨, 2015;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2. 학출활동가의 삶 이야기』, 봄날의 박씨, 2015.

그리고 변혁』이 그 2년 뒤인 2017년에 나왔다.<sup>6)</sup> 하지만 아직도 부산지역의 학출활동가의 변혁 운동에 관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다. 단지 1987년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가운데 일부로 학출활동가 당사자들의 구술과 집담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단행본 일부가 있을 뿐이다.<sup>7)</sup>

87년 소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기 전 시기 ‘학출’이 주도한 노동 운동에 대한 자료는 각 노동 현장에서 발행한 유인물, 재판 관련 기록, 노조 신문과 기관지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그 자료들로 학출활동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자주 거처를 옮겨야 했고, 수시로 자신들의 기록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자료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구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유실된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 참여는 행위자의 이념, 가치, 지향 등을 중심으로 한 목적 의식적 선택이다. 하지만 기존의 심층면접 등 인터뷰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따라 이론적 가정 하에 미리 짜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므로, 화자가 연구자의 의도와 자신의 구술의도에 적합한 내용을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양적 조사에서 수치로 표현되는 내용을 화자의 말로 대치할 뿐 행위자의 체험을 포착하기 어렵다.<sup>8)</sup> 그래서 행위자의 체험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은 구술을 주요 자료로 삼은 것이다.

구술의 목소리들은 기억 특유의 사실 자체에 대한 불명확성도 있고,

6) 김원 외,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7) 『80년대 전반기 부산의 노동운동』,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8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선인, 2017.

8) 구은정,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운동정체성의 변화: 변혁지향적 폭력적 민중운동 대 개량적합리적 시민운동 이분법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78, 2008, 112쪽.

개인적 판단에 치우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글의 구술은 질문을 열어놓고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대한 사실뿐 아니라 구술자가 현재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을 드러낸다.<sup>9)</sup> 결국, 그들이 지금 소환한 기억이 당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 들어 있는 그들의 구술이 역사의 팩트(fact)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구술에 의존한 이 연구가 부산지역 노동운동을 사를 객관적이고 실체적으로 드러낸다고도 보지 않는다.

## II. 부산지역 노동운동의 시작과 ‘실-반실’ 논쟁

1985년 4월 16일에 인천 부평에서 대우자동차 파업이 그리고 1985년 6월 서울 구로에서 이 지역의 10개 노동조합이 동맹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이 두 사건에서 학출활동가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하며 투쟁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전형적인 노학연대 투쟁이라는 규정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sup>10)</sup>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많은 학출 운동가들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 노학연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당시 노학연대를 추구하는 세력 내부에서는 전두환 독재 정부의 탄압에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있었다. 선도적으로 투쟁에 나섬으로써 대중을 각성시켜 이끌

9) 당시 학출활동가 가운데 일부는 인터뷰를 고사하기도 하고, 일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구하기도 하는 등의 본질적인 이유로 인해 모든 당사자를 온전히 조사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특정인은 분량이 많기도 하고, 특정인은 분량이 적기도 하다. 과학적 분석이 아닌 구술사 방법론에 의한 연구이다 보니, 논문이라는 논리 전개에 맞게 대표사례를 취할 수밖에 없다.

10) 자세한 논의는 이광일,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메이데이, 2008, 192~195쪽 참조 바람.

어가느냐 아니면 조직을 보전하면서 이후를 준비하느냐, 의 노선 논쟁이다. 그와 관련된 논쟁은 1980년 5월 광주 이후 서울대 운동권 내부에서 벌어진 소위 ‘무학논쟁’으로부터 비롯된다. 1982년, 무림그룹이 『야학비판』이라는 팸플릿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준비하면서 장기적인 투쟁을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른바 운동의 단계 투쟁에 기반한 (현장)준비론이다. 반면 학림그룹은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팸플릿을 통해 학생운동 세력은 혁명을 위한 전위 세력이며, 정치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른바 운동의 일상 투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선도)투쟁론이다. 양쪽 모두 궁극적으로는 대중이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하지만 전자는 소그룹운동을, 후자는 전위투쟁을 주장하였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체험한 학생운동가들은 대학별, 지역별로 조직적으로 노동 현장 이전(移轉)을 추진했는데, 이로써 학생운동이 노동 현장, 노동운동과 조직적으로 연대하게 되었고, 이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동 현장 이전은 1970년대 개별적인 노동 현장 이전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으로 1980년대 노학연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sup>11)</sup> 수도권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는 선배들의 인맥을 통한 개별적 방식으로 노동 현장에 들어갔으나, 1984~5년 경부터는 현장 내에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운동 조직과 연결되면서, 조직적 관계 속에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역 소모임, 사업장 소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학습을 통해 변혁적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해나갔다.<sup>12)</sup> 이러한 현상은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부마항쟁 즈음 부산대학교 출신 학생 활동가들에 의해서 실천되기 시작했다. 이상록, 노재열, 정귀순 등으로 대표 되는 학출활동가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한 이상록은 1978년 부산대학교 내에 첫 비밀결사 학생운동 조직인 ‘사랑공화국’(일명

11) 김원 외, 앞의 책, 523~524쪽.

12)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후마니타스, 2007, 270쪽.

도깨비집)을 조직하고, 그 안에 학년별 재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이상록은 1979년 부마항쟁에 참여한 후 졸업을 즈음하여 노동 현장에 투신하기로 하고, 1980년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3월 주례동에 있는 대유산업과 부산링구공업사에 취업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노재열도 공장에 취업하였다가, 5.18 직후 구속되어 81년 전두환 취임 후 석방되었다. 이들은 광주민중항쟁 이전에 공장에 투신하지만, 광주민중항쟁 이후 그들의 조직에 의해 노학연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익명의 활동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부산지역에 현장에 들어간 학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부마항쟁을 터트리고 난 후 이쪽에서는 ‘부산이 일어나면 (세상이) 디비진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분위기에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부산대의 여러 조직에 의해 학출들이 설 틈 없이 육성되었고, 그 운동권들을 저는 공장 현장에서 쉬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점조직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난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노동자 그룹 하나를 학습시키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면 일요일 두 조까지 치면 여덟 조직, 빼면 여섯 조직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 조직은 제가 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학습시키고, 또 그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학습시키는 전형적인 점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구체적인 건, 맨 위에 있는 한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sup>13)</sup>

서울에서 구로동맹파업 이후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단순한 한 부문이 아니라, 변혁 운동의 주도 계급으로서 정치 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13) 2021. 02. 15. 부산 중앙동 구술

수행해나가야 할 중심 세력으로 인정받았고,<sup>14)</sup> 이에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과 인천노동운동연합(이하 인노련)이 창립된다. 1985년 하반기에 부산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의 서노련과 인노련의 노선을 추종하는 팸플릿이 운동권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그 분위기에서 학술활동가 황민선이 『실천적 임금투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1986년 임금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정치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팸플릿을 통해 적극적 선도 투쟁을 강조했던 이재영, 황민선 등을 보통 ‘실(임)’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들과 다른 입장으로 정치 투쟁을 위한 이론적,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상록, 노재열 등을 ‘반실(임)’ 그룹으로 부른다. 주로 오랫동안 준비한 선배의 위치에 있었던 활동가들이 후자, 새롭게 결합한 후배의 위치에 있었던 활동가들이 전자에 속했다. 당시 『실천적 임금투쟁을 위하여』를 작성하여 논쟁의 불을 지피기 시작한 황민선은 ‘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위로 복무를 하면서 퇴근 후 기술학교에 가서 선반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로 사상에 있는 대륙공업사에 가서, 일하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을 해 보니,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은 일종의 전위여야 한다는 거지요. 희생을 당하더라도 투쟁을 하면서 조직을 해야지, 기존에 해오던 선배들이 하던 식의 장기적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책보다는 실천적 싸움을 해야 의식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곧 있으면 임금투쟁 시기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학습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판을 엮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오랫동안 준비해오시던 선배들, 장기적 관점에 선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서로 만나서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팸플릿을 내고 뿌리면 그에 대해 그쪽에서 반

14) 김창우, 위의 책. 272쪽.

론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적발되면 다 뿌리 뽑히는 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당시 논쟁에서 반실의 리더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상록은 「1970~80년대 운동의 회고」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86년 4월 우선 부산지역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전위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전체를 조직하며 나아가 영남지역을 통일적으로 묶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연합 형태로 전국당을 건설한다는 것이 나의 구상이었다...그리하여 3인으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레닌의 페테르부르크 노동자계급 해방투쟁동맹 조직을 본떠 여러 개의 기능 팀을 두었다...세칭 ‘반실’ 조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실입’ 그룹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말미암아 엄격히 말하자면 노동운동 진영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급조한 방어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전위 조직’을 천명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이론적인 주장일 뿐, 현실적으로 조직 경쟁에 부딪히자 우리 또한 수준 미달의 활동가들을 일부 끌어안고 말았다. ‘대중정치조직’(MPO) 주장을 조롱하고 비판해 온 우리였지만 객관적으로는 우리 또한 MPO를 만들고 만 것이었다.<sup>15)</sup>

두 그룹의 투쟁노선 차이는 뚜렷하다. 하지만, 각 노선을 따르는 활동가들의 범주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노선 투쟁을 했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자료가 없다. 이상록과 황민선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노재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故 이상록 선생 추모 모임 엮음, 『사랑공화국에서 미륵공화국으로』, 백산서당, 2009.

두 그룹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르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사회변혁론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문제는 노선 투쟁이었다는 점입니다. 노선 투쟁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운동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준비론과 행동론은 있었잖습니까? 실·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의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직 내에서 선도 투쟁을 주장하는 쪽이 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실’ 쪽에 서지는 않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저는 심정적으로 ‘실입’ 쪽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계속 조직 사업만 한다고 조직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잡혀가고, 죽고 하면서 조직이 더 완성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입 쪽 주장도 충분한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sup>16)</sup>

그들은 노선 투쟁을 하였으나, 둘 다 똑같이 파업을 통한 노조 결성과 정치 혁명을 추구하였다. 실·반실 논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학출활동가들이 초기 노조 결성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삼도물산과 세화상사 노조 결성 투쟁이다. 삼도물산 노조는 학출활동가 송향란이 조직 사업을 한 후 1984년 9월 5일 조 반장을 중심으로 설립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이 조합원들 특히 삼도물산 부설 영도남여상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제적의 위협을 가하였고, 결국 노조 위원장이 포섭되어 어용으로 돌아서 버렸고, 그가 노조를 해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간부와 일반 조합원 80여 명이 ‘노조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임시 위원을 선출하여 노조를 지켜내는 데 성공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주동자가 해고되면서 실패하고 만다. 세화상사의 경우는 1985년 2월 세화상사 사측이 전년도 12월 월급에서 강제 저금을 뺐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환불받았는데, 사측이 이 일을 벌인 주동자를 색출하였고, 이에

16) 2021.02.15. 부산 중앙동 구술

노동자들은 평소 비인격적 대우, 저임금,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실’ 쪽의 학출활동가 이재영의 역할이 컸다. 세화상사의 경우 선도 투쟁을 주장하는 ‘실’ 쪽에 선 학출활동가들이 노조 결성 후 아직 제대로 된 대중 조직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치고 나갔고, 이에 안기부가 개입하여 위장취업자를 적발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면서 노동운동 기반이 상당히 허물어져 버렸다. 그러나 삼도물산과 세화상사의 초기 노조 결성 투쟁은 뒤이어 발생한 국보직물, 동양고무, 풍영, 대양고무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던 지역의 중소기업 노동운동에 많은 자극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박현수, 김미자, 노득현, 정귀순, 하봉순 등 학출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 해고당했다. 그 후 여러 신발공장에 침투되어 있던 학출활동가들의 조직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학출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장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적 전술에서 ‘실’과 ‘반실’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도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속하는 대학생이고, 그들이 포섭하려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나 산업체 여상에 다니거나 그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생활이 곤란한 어린 여성이었다. 그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 일에 잔뼈가 굵었고 고된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참고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려는 일념에 몰두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학출활동가들은 현장으로부터 동떨어진 급진적 관념에 치우쳐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만무하였다. 노동자 출신 노동운동가 박주미는 이렇게 말한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공부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태화교무를 다닐 때 친구가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는 대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성안교회 야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 수학도 배우고 노동에 대한 것도 배웠는데, 이후 지오세(J.O.C.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80년대 초에는 학출들과 관계없이 지오세 점조직이 공장 내에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오세 조직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론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고, 지오세의 풍토가 영성에 바탕을 두고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이 강해, 시간을 두고 주변의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각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출들은 뭔가 일을 벌이면서 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그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제상사를 다니면서 야학과 지오세를 통해 학출들을 많이 만났는데, 야학에서 만난 어떤 강학이 국제상사를 피바다로 만들자고 하는 말에,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sup>17)</sup>

모든 학출 조직원이 다 변혁을 위한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아 학출 활동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반실 그룹에 속했고 ‘사랑공화국’에 속하면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정치 혁명론에 의해 학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 출신 학출활동가 이숙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학에서 열서너 살 먹은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을 뿐, 무슨 혁명 의식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들을 대상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학에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17) 2020.02.17. 부산 개금동 구술

도와주고 싶어서였지, 그걸 가르쳐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그 아이들을 세포로 조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로 노동자들과 특별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공장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들과 무슨 갈등을 일으킵니까? 그런 정신없었습니다. 대학교 1~2학년생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나이 어린 동생 같은 아이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한다는 양심으로 암울한 그 시대가 그렇게 이끌었을 뿐이지, 특별한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학습하고 혁명을 하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sup>18)</sup>

### Ⅲ. 파업과 연대에서 학출활동가의 역할

‘실·반실’ 논쟁이 구체화 된 것은 86년 동양고무 임금투쟁을 앞두고서였다. 동양고무 투쟁은 1986년 3월 15일부터 6월까지 전개되었다. 이 투쟁은 보기 드물게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소그룹 활동을 통해 준비하였고, 40~50여 명의 선진노동자<sup>19)</sup>들이 투쟁 주체로 나선 싸움이였다. 최종적으로는 학출 운동가 3인과 다수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임금투쟁을 통한 조직 확대와 의식 고양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sup>20)</sup> 당시는 5.3

18) 2020.11.24. 부산 기장 구술

19) 임영일은 ‘선진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학생이나 지식인 출신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출신의 활동가들이라는 점, 둘 때 설사 지식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현장에서의 노동자적 경력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 셋째, 현장 활동과의 일상적 결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된다는 점이다(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79쪽).

20) 동양고무 투쟁의 자세한 경과는 조근자, 『동양고무 노동운동 정리』, (사)부산민주항

인천 사태가 발발한 직후여서 정부는 당감동, 주례 등 사상공단과 그 주변 주거지를 살살이 색출하였고 그로 인해 학출 조직들이 공안 당국에 의해 상당히 드러나 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선부른 선도 투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들였던 조직의 뿌리가 뽑혀 와해 되었다는 평가가 대체로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시 학출활동가로 공장에서 일했던 김영희는 이와 달리 말한다.

실과 반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학출 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노선이 논쟁한 겁니다. 실임 쪽에서는 언제까지 조직만 하고 있을 것이냐는 논리로 선도 투쟁을 주장하면서 선배들이 말리는 사이에 거사를 벌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 그 쪽 노선을 따르는 학출들만 다 뿌리가 뽑힌 것이지, 반실 쪽 활동가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여전히 대학 후배들과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고 운동권은 계속 양성되어 있어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조직원들은 꾸준히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실 쪽과 연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직 전체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꺾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였던 급진적 정치 투쟁으로서의 운동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한 채 논쟁에 휘말려 있을 때,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실리와 노조 건설을 위한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반면, 그들의 혁명주의적, 레닌주의적인 전통적 맑스주의의 노동운동 이념과 노선은 대투쟁을 계기로 대중운동과 결합 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대중운동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운동 조직으로의 정향을 굳혀가고 있었다.<sup>21)</sup> 이를 두고 고(故)고호석 전(前)부마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렇

재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235~257 참조.  
21) 임영일, 위의 책, 80쪽.

게 진단한다.

장단기 계획에서 수공업성과 경험주의를 거의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을 되풀이해왔다. 특히 입으로는 ‘노동자 주체’, ‘대중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노동자 대중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싸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어떻게 헌신·봉사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대중들을 대상화시켜 놓은 채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써 운동의 주체를 활동가 자신들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었다.<sup>22)</sup>

학출들이 ‘실·반실’ 논쟁을 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그들과 별 상관없이 노동자의 불만이 쌓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점화하여 87년 대투쟁이 폭발하였다.<sup>23)</sup> 임영일은 당시의 학출활동가 조직들은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었고, 개입하고자 하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노동자 대투쟁 직전인 1987년 6월 26일 창립한 인노련은 소위 NL과 PD가 함께 결합하여 조직한 대표적인 정치적 대중조직(PMO)이었지만, 창립과 동시에 맞은 노동자 대투쟁의 3개월여의 기간을 이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벌인 지루하고도 치열한 내부 논쟁으로 소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4)</sup> 하지만 수도권에서와는 다소 달리 부산에서는 그러한 학출 내부 노선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실·반실’ 논쟁으로 나타난 그 내부 갈등은 수도권같이 정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 폭발이 있기까지 학출활동가들이

22)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선인, 2017, 33쪽.

23)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도서출판 친구, 1989, 116쪽.

24) 임영일, 위의 책, 1997. 78~79쪽.

노동자를 의식화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만, 그 폭발 시점이 그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일 뿐 처음 폭발이 이루어진 후 투쟁의 대오를 조직하고, 전술을 짜고, 노동자에 대한 선전 선동을 한 것 그래서 그 투쟁이 길게 지속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학출활동가들의 조직 사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발발 과정에서 공장에 들어와 있던 학출활동가들의 소그룹 운동은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못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동양고무 등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정윤식은 이렇게 말한다.

당시 투쟁이 노동운동으로 학습이나 훈련을 받은 운동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폭발하는 중에 대표로 뽑힌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폭발했을 때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고치기는 했는데, 그 사업을 조직적으로 할 역량이 되지 못해, 대부분이 88년, 89년을 거치면서 다 나가버립니다. 87년 대투쟁은 학출들이 말하는 바대로 의식화되거나 조직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터졌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sup>25)</sup>

그들은 이념의 과잉 즉 비현실적인 이론과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혁명적 씨클’ 이상의 위상을 지니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sup>26)</sup> 부산지역에서 팜플릿 『실천적 임금투쟁을 위하여』를 유포하여 ‘실·반실’ 논쟁을 촉발한 황민선도 당시 공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조직 사업을 한 활동가가 아니었다. 전적으로 전술 논쟁을 일으킨 일종의 이데올로그였다. 그들은 학출활동가들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채, ‘실’ 쪽 활동가들은 선도 투쟁 전술로, ‘반실’ 쪽 활동가들은 준비 전술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노선 논쟁에 과하게 몰두하고 있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소모

25) 2020. 09. 08. 부산 초량 인터뷰.

26) 이광일, 위의 책. 215쪽.

임을 지도하는 학출활동가들이 자신들이 학습을 통해 실천으로 접근한 방식을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학습을 우선시한다는 데 있었다.<sup>27)</sup> 그래서 학습을 통해 찾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들 사이에 통일된 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이 변혁을 목표로 하는 운동가로서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평가는 위와 같은 것이 대체로 대세를 이루지만, 그렇다고 그런 평가가 역사적 진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학출 노동자들 내부에서는 이런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동양고무 투쟁에서 조직을 총괄 담당하면서 해고된 학출노동자 조근지는 학출활동가들의 동양고무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희들은 단순한 노동운동을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고 정치적 과업을 해서 전투환 정권에 타격을 주는 민주화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학출들은 처음에 공장에 와서 너무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듣기 힘든 욕을 너무나 많이 듣고, 손도 무더 일도 잘못하는 데다가, 하루하루 일은 너무나 힘들고, 대학 들어간 지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동자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 빨리 뭔가 해내야 한다는 조급한 심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그 세미나에서는<sup>28)</sup> 어찌면 한탕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모든 역량 다 투입하고 파업에 가보지도 못하고, 두 차례의 파업 시도 끝에 참여자나 후속 작업을 위해 대기한 채 안 나타난 조직원이나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 드러났다고 해서 그 조직원 충원이 끝나버린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대학에서 끊임없이 현장에 들어왔고 저희들과 연계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실패한 시도를 보면서 영향을 받

27)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봄날의 박씨, 2015, 291쪽.

28)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토록 뜨거웠을까』, 선인, 2017, 206쪽.

은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씨앗이 되어 나중에 87년 대투쟁을 끌어낸 겁니다.<sup>29)</sup>

비슷한 맥락으로 부산의 학출활동가 조직에서 선배의 입장에 서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그 이후 부산노동자연합(부노련)과 민주노총까지 계속 노동운동을 해온 노재열은 이렇게 말한다.

일부 운동권의 당시 조직의 역량이 부족해서 결국 혁명에 실패했고,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에 속하지 않고 조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 실임 쪽 활동가들이 치고 나간 선도 투쟁을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성급한 오류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치고 나간 뒤에도 학출 조직은 뿌리 뽑히지 않았고, 현장 조직은 더욱 강고해지고, 그것이 지하의 흐름 속에서 87년 대투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면서 목표 삼은 것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핵심 뱅가드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동자 뱅가드가 주축이 되어 ‘실’이든 ‘반실’이든 간에, 시기에 상관없이 투쟁하자는 것이지요. 87년 대투쟁만 해도 그래요. 외부에서 보기는 자연 발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조직을 해 온 학출의 점조직이 뿌린 씨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87년 대폭발이 있기까지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킨 것은 학출활동가들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그 폭발 시점이 우리가 의도한 바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일 뿐, 현장에서는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87년 노조들이 우후죽순으로 조직되는데, 그것이 자연 발생이나 우연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까? 선도투를 주장한 활동가들이 씨를 뿌린 게, 거름이 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선도투를 주장한 ‘실임’ 쪽 사람들은 그 직후 현장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옮겨, 저도

29) 2021. 02. 21 전화 인터뷰

그랬는데, 어차피 수배를 당하더라도 위장 취업을 해야 하니까요, 계속 조직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공장 안과 조직 연계를 하면서, 밖에 자취방을 구해서 거기에서 노동자들과 만나 소그룹 학습하면서 ‘반실’이 여전히 조직하고 있는 공장 안과 연계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sup>30)</sup>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출활동가가 대투쟁에 이바지한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투쟁 동안 단위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 차원의 노동자 간 연대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일어난 공장에서 그 파업의 경과가 다른 공장으로 알려지면서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나중에 일어난 공장에서 더 나은 동원과 조직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좋은 예로, 태광산업과 조선공사 그리고 세신정밀 투쟁 승리 소식이 삼시간에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일부 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 노동자를 통해 다른 기업체로 소식이 빨리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야간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노동자가 많이 다니는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니, 태광, 조선공사, 세신정밀 노동자의 투쟁 및 울산 현대 노동자의 투쟁 소식이 이어지는 국제상사의 집회에서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sup>31)</sup>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출활동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조직해 온 소그룹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고, 그 학출활동가들의 외부 조직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1985년 일어난 구로동맹파업에서는 학출활동가들의 소그룹운동이 큰 역할을 못했고, 노조가 큰 역할을 했지만, 부산지역 대투쟁에서는 노조 자체가 아직 결성되지 못한 상태라 학출활동가들과 선진노동자와의 연대가 중

30) 2021.02.15. 부산 중앙동 구술

31)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 『간업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1쪽.

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연대는 노동자대투쟁 이전 즉 87년 6월항쟁 당시 큰 힘을 발휘하였다. 공장 안에서 파업을 시도하다가 쫓겨난 학출활동가들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이하 부산국본)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그들은 본부 내에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을 지원하였으니, 이런 예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국본에 합류한 학출활동가들은 공장에서 쫓겨난 후 공장 밖으로 나와 공장 안 소위 선진노동자 세력과 연대를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실, 6월 민주화 투쟁에서 7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상황이 발전한 것은 6.29선언이 담은 여덟 개 조항이 모두 정치 민주화에 대한 것이었을 뿐, 노동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고, 이러한 불만을 학출들과의 연대 속에서 양성된 노동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기업 채산성이 좋아져서 소위 3저 호황의 시기였음에도 노태우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또 6.29 선언이 나온 뒤 교수, 교사, 학생의 복직은 거론되었지만, 노동자의 복직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1986년 말부터 노동, 학생, 재야(공개기구)의 대표들이 비공개적인 루트를 통해 부산지역의 민주화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에서 부산국본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성한 계기가 되었고<sup>32)</sup>, 그 과정에서 부마항쟁과 부림사건을 거쳐오고, 그 후 공장으로 들어가거나 지하에서 조직 활동을 하다가 쫓겨나간 학출활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에 대해 학출활동가로서 부산국민운동본부에서 선전 홍보 업무의 일을 맡았던 양은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2) 김석준, 「6월항쟁 주체의 계급적 성격」,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98쪽.

6.29선언에 대해 나온 전국의 여러 논평 가운데 부산의 국민운동 본부에서 나온 것이 가장 괜찮았다고들 합니다. 그건 부산 국민운동 본부만 유일하게 이 선언이 절반의 승리일 뿐이라고, 그 이유는 해고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힘으로 ‘누가 노동자의 항쟁에 침을 뱉는가?’라는 사실까지 내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특히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 노동 문제를 당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된 것은 무마항쟁과 부림사건을 거치면서 축적된 학생운동권의 힘이 있었고, 학출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가 쫓겨 난 후 그 사람들이 사회 운동노동 진영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저만해도 혁명 차원에서 환경운동, EYC 등 사회운동을 일종의 전위대로서 조직하고자 그쪽으로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급진 노동운동을 추구했으나, 시민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전위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봤습니다. 저희는 시민세력을 자유주의자라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sup>33)</sup>

연대 운동으로서의 부산국본을 통한 6월항쟁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학출활동가들이 영향을 남길만한 큰 대중 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끈질기게 남아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출활동가들의 활동은 이후의 부산지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sup>34)</sup> 송영수의 지적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본질적인 평가다. ‘실’이든 ‘반실’이든, 학출활동가의 투쟁과 조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든, 이후 발생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부산지역 노동운동사에 획기적인 분기를 이룬다. 노동자대투쟁은 초보적이고, 추상적이었으나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적 전망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후 지역노조협의회와 업

33) 2020.09.14. 부산 서면 인터뷰

3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위의 책, 203쪽.

종노조협의회를 조직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연대성을 보여준 원형이 되었다.<sup>35)</sup> 부산지역에서 이러한 연대의 분위기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87년 11월 15일 부산노동자협의회(이하 부노협)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부노협은 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새로 결성된 300개 사업장에서 10만여 명, 70개에 이르는 신규 노동조합들끼리 더욱 큰 노동조합 연대체를 결성하도록 학출활동가, 해고노동자 등 이른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부노협은 단위 기업에서 하는 하기 힘든 노조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방법, 간부 교육, 법률 상담, 활동 전략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연대 조직을 모색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하였다. 사실 대투쟁 당시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현장 밖으로 쫓겨나간 그 선진노동자들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은 현장을 지도하고 함께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처한 현장 상황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상황 오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부산의 ‘반실’ 그룹이 주축이 되어 서울에서 내려온 또 다른 학출활동가들과 합세하여 결성한 것이 바로 부노협이다.

부노협 결성 후 그들은 실무자 중심 체계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선진노동자 조직을 세워야 할 필요에 따라 부노협을 해산하고 부산노동자연합(이하 부노련)을 추진하여 1989년 4월 16일 부노련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노협을 발전적 해체하여 부노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과 부노협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강하게 대립했고, 양자는 89년 1월 6~7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1월 24일 7차 회의까지 의견을 나눴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일부 부노협 실무자들이 부노련 참여를 거

35) 노중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 사회』 96, 2012, 185쪽.

부하였다. 그 갈등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노선과 실천에 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부노련으로 가자는 쪽은 ‘반실’ 쪽으로 여전히 정치 투쟁으로서의 변혁 운동의 한 단계로서 노동운동을 위치시키고자 하였고, 반대하는 쪽은 변혁을 위한 정치 투쟁에 반대하면서 노동운동을 지도가 아닌 지원의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목표로 부산노동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반실’ 쪽 선진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부노련은 전위대 육성을 통한 변혁 운동의 하나로, 삼화고무 해고노동자들의 출근 투쟁 연대 시위, 조선공사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지원 등을 벌였고, 그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더 강한 노동자 연대의 틀을 조직하고자 했다. 부노련은 부산지역에서 여러 민주노조가 결성되고 그 힘이 모여 부산지역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부산지역노동조합연합회(이하 부산노련)가 조직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부산노련의 간부들은 대개 부노련의 회원이 됨으로써 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부노련의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부산노련을 조직하는 일을 한 김영희는 당시 부노련이 했던 조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부노련의 상근자로 일을 하다가 고려피혁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노동자들을 모아 부노련으로 보내 노동자 교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을 다시 모아 조직 사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같이 각 노조에 파견 간 사람들이 현장에서 조직한 노조원들이 부노련 노동자교실을 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노조 간부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부노련의 기관지는 부산지역 전역으로 뿌려졌고 부노련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노련의 상근자는 다시 부산노련으로 가서 부산지역의 노조를 조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학출활동가와 그들이 육성한 선진노동자가 조직한 부노련이 없었다면 부산지역의 노동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봅니다.<sup>36)</sup>

부산지역 노동운동에서 학출활동가들이 연대체 결성의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실’과 ‘반실’ 사이의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하나의 연대 조직을 결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반실’이 부노련을 결성할 때, 소위 ‘실’ 쪽에서도 부노련 비슷한 조직을 따로 만들려 하기도 했다.<sup>37)</sup> ‘실’과 ‘반실’ 양쪽 모두 선진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 결성과 변혁을 위한 정치 투쟁 시도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파업의 실천을 두고 갈라진 틈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연대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 뿐이고, 그 실패는 부산지역 노동운동 진영에 반목의 문화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

#### IV. 맺음말

부산에서의 ‘실’과 ‘반실’, 두 그룹 모두 노학연대 차원에서 파업을 통해 정치 투쟁을 한다는 생각은 동일하였다. 굳이 다른 게 있다면 ‘실’ 쪽은 조직 기반이 설령 좀 덜 되어 있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선도 투쟁을 통해 변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반실’은 조직 구성의 역량이 될 때까지는 소규모 학습을 통해 조직을 다지다가 준비가 될 때 정한 일정에 따라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반실’ 논쟁은 당시 공장에서 조직 사업을 하던 학출활동가가 전적으로 참여한 논쟁은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공장 안에서 자기 조직 관리를 하고 있던 학출들은 그런

36) 2021. 02. 15. 부산 중앙동 구술

37) 황민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위 선도투라는 노선을 함께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 전국의 가장 가운데 위치한 경북 영주에서 모여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86년을 바로 앞두고 저희들은 정국이 이제 터져야 할 때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전국 연대 조직을 가동하려 했는데, 수배가 떨어지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러면서 전국 조직은 실패하고 난 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왔습니다.” 2021. 02. 21. 부산 주례동 구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바깥으로는 수사 당국이 조여오고, 일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조직 사업에 열중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논쟁에 낄 겨를이 없었다. 더군다나 실천의 결과에서 보면, 양쪽의 큰 차이가 일어나지도 않았다. 황민선의 「실천적 임금투쟁을 위하여」 팸플릿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실’ 쪽에서는 세화의 파업을 주도했고, 불과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은 시기에 ‘반실’ 쪽에서도 풍영 파업을 주도하였다. 물론 ‘실’ 쪽에서 선도 투쟁을 하는 바람에 ‘반실’ 쪽에서 마냥 준비만 하고 있자니, 조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국 양쪽의 노선과 실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독재 정권에 맞서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노동운동의 씨를 뿌렸고, 그 결과가 모여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이후 연대 결사체인 부노협-부노련으로 연대체를 결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학출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사회 변혁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맑스 이론에 경도된 채 역사의 시공간적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운동의 주체성이나 대중의 주체적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로 인해 운동과 대중과의 분리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결함에 의해 그들은 변혁을 위한 정치 투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후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주의와 노동조합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이후의 노동운동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학출활동가 급진 변혁 세력의 대(對)사회 영향력은 거의 없었음에도 그들은 공안 당국에 의해 체제 불안의 원인이 되는 불순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이 낙인은 한국 사회에 매우 강하게 퍼졌다. 그들은 굳이 이념을 기준으로 보자면 반(反)체제 세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

영향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그 이념의 급진성 때문에 독재 정부에 의해 체제 불안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당하는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민주화 세력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학출활동가 급진 세력은 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 하지만 그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의식화된 노동자들을 길러냈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이후 독재 정권과 회사 측의 엄혹한 탄압에 저항하면서 신규 노조 결성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임금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과 ‘반실’ 사이에는 뚜렷한 전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학출활동가의 운동 덕분에 87년 이후 비로소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그들 외부 학출활동가로부터 현장의 노동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 | 참고문헌 |

- 구은정,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운동정체성의 변화-변혁지향적폭력적 민중운동 대 개량적합리적 시민운동 이분법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8, 2008.
-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아카데미, 1993.
- \_\_\_\_\_, 『6월항쟁 주체의 계급적 성격』,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원 외,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후마니타스, 2007.
- 노준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 사회』 96, 2012.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 『잔업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87년, 부산의 6월은 왜 그  
토록 뜨거웠을까. 80년대 부산의 민주화운동』, 선인, 2017.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1~2)』, 봄날의 박씨, 2015.
- 이광일, 『좌파는 어떻게 좌파가 됐나』, 메이데이, 2008.
- 故 이상록선생추모모임 엮음, 『사랑공화국에서 미륵공화국으로』, 백산서당, 2009.
- 이종오,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 『한국노동운동의 이념』(한국기독교산  
업개발원편), 정암사, 1988.
- 임영일,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1987~1995』,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도서출판 친구, 1989.

투고일 : 2021. 05. 07. 심사완료일 : 2021. 06. 23. 게재 확정일 : 2021. 07. 07.

| Abstract |

The tactics and practice of university student labor activists  
in Busan area in 1980s with the special references on the  
debate of ‘Sil-Bansil’

Lee, Kwang-Su

The evaluation of the ‘Sil-Bansil’ debate in Busan is a tactical one between the so-called ‘sil’ camp, which reinforces the organization through leading struggles and the ‘anti-sil’ camp, which requires immersion in preparation through small-group activities until competency is established. However there was also the same goal of creating and organizing a vanguard team to pursue a transformation movement. No one can deny that the university student labor activists formed a secret society against the dictatorship to sow the seeds of the labor movement and the results were brought together to the Great Workers' Struggle in 1987 in Busan.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 student activists pursued social transformation by being obsessed with unrealistic ideologies that did not fit into Korean society. They were obsessed with Marx's theory failing to recognize the difference in the time-space context of history thereby deepen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masses. Contradictory to this point, the labor movement based on economicism and trade unionism by liberals led to a great explosion of the labor movement in 1987, without exerting any influence of the movement as a radical political struggle they pursued.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of them should be that they raised conscious workers through small-group movements and there were awakened workers who grew up through the process. It should be that they

were able to succeed in their work and they were able to actively engage in the struggle for wage increases 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 Busan, labor movement, university student labor activist, 'Sil-Bansil', Line Struggle.

